

## 4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애니메이션영화제 발전방향

- I. 들어가며
  - II. 4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의 특성과 장단점
  - III. 한국애니메이션영화제의 특성과 장단점
  - IV. 한국애니메이션영화제 발전방향
  - V. 결론을 대신하여
- 참고문헌  
ABSTRACT

최영철, 최승락

### 초 록

한국애니메이션영화제 역사는 1997년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 1999년 부천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PISAF)이 10년을 넘어서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영화제로 현재까지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초기의 성과와 비교한다면 관객의 애니메이션영화제에 대한 참여와 관심은 줄어들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산업중흥 및 애니메이션 장르의 확장이라는 목표는 최근 애니메이션산업의 위기와 맞물려 애니메이션 영화제 또한 위축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4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로 불리는 안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자그레브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오타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히로시마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의 특징과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한국애니메이션영화제 발전방향에 관하여 모색한다. 21세기 들어서 애니메이션은 그 장르의 경계가 모호해진 가운데, 기술적인 진보와, 3D, CG로 대표되는 제작환경의 변화 등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4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혹은 선별적인 도입을 통하여 각자의 문화정체성과 애니메이션 제작 및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갔다. 특히 이런 변화에 맞추어 세계의 애니메이션영화제 비교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애니메이션영화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 시의 적절한 작업이다. 이 논문에는 그동안 안시영화제 방문경험과 안시에서 만난 다양한 국제영화제 인적교류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각각의 해외애니메이션영화제 특성과 그 운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애니메이션영화제가 애니메이션 미래의 비전을 주도적으로 창조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4대 영화제들의 성공기반은 오랜 전통과 역사에서 비롯된 안정적인 시스템-전용상영관, 관객의 적극적 참여, 지속적인 정체성확립과 특성화, 상호간 국제네트워크협력에 있다. 따라서 이들 영화제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반을 구성하는 것이 한국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필수적인 조건이며, 여기에는 애니메이션의 자체매력을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교육목표와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애니메이션, 국제영화제, 발전방향

## I. 들어가며

‘영화제’는 축제(Carnival)의 기능을 함축한다. 축제의 기원은 일상 근심을 잠시나마 망각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영화제가 주류(일상) 혹은 상업에 대항하여 그 범위를 확산하는 대안적 축제라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며, 여기에서 장르의 하나로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합하면 ‘애니메이션영화제’는 결국 생명을 불어넣은 작업을 내세워 특별한 장르인 애니메이션에 속하는 영화들을 모아놓고 전시하는 꿈과 환상의 집합체라고 할 것이다. 한국의 국제영화제는 1996년 ‘아시아최고의 영화제’를 목표로 한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1990년대 후반, 연속적으로 ‘판타스틱’ 장르영화제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디지털 대안영화’를 표방한 전주국제영화제 등 각 지역을 기반으로 다수의 영화제들이 등장하였다. 영화제의 예산증가에 따른 영역확장과 파급효과는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담론을 쏟아내었지만 영화제 연구는 대부분이 특정 지역의 발전과 그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둔 영상산업에 기반을 둔 것이며, 특히 애니메이션영화제는 특히 타 영화제의 그것과는 다르게, 학술적인 축적으로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애니메이션영화제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통계자료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영화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에 기인한다. 바야흐로 지금 한국애니메이션영화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한계성 요인을 포착, 쟁점화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제기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대상과 연구 목적을 설정한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애니메이션영화제’로 연구목적은 특히 4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sup>1)</sup> - 안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자그레브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오타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히로시마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의 특성과 장

1) 4대 애니메이션영화제는 국제애니메이션필름협회 (ASIFA, Association Internationale du Film d'Animation/ The International Animated Film Association) 공인후원영화제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단점을 비교분석하면서 한국애니메이션영화제의 성과와 비교하면서 그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애니메이션영화제가 수행할 수 있을 역할을 구체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단계로서는

첫째, 4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의 특성과 역사를 파악하고 애니메이션영화제 개최 및 조직 운영 과정에 있어 최근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그 주요 성과의 지표에서 드러나는 장단점을 분석한다.

둘째,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영화제 모델 및 체계를 도출하여 보다 장기적인 애니메이션영화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의 애니메이션영화제의 특성과 장단점을 4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의 그것과 분석하면서 한국애니메이션영화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조사과정속에서 안시를 제외한 지역은 인터넷과 문헌정보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안시영화제에 비해 정보와 분량이 많지 않음을 밝혀둔다. 한국애니메이션영화제는 1997년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sup>2)</sup> 1999년 부천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PISAF)등으로 대표되는데, 그 시초부터 애니메이션영화제의 발전적 모델로 4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를 참고하였음은 자명하다.

애니메이션영화제	기간	상영관	시작/주기	규모/참여인원
안시영화제	6월초 (6일)	안시 10개관	1960년, 매년	70개국 530편(2011), 200,000명
자그레브영화제	5월말 (6일)	자그레브 4개관	1972년 작수(단편) 홀수(장편)	단편 40개국 250편 장편 20개국 20편 약 30,000명
오타와영화제	9월말 (5일)	오타와 4개관	1976년, 매년	40개국 320편 약 27,000명
히로시마영화제	8월 (5일)	히로시마 3개관	1985년, 격년	30개국 250편 약 34,000명

표 1. 4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개요

2)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영화제는 페스티벌의 하위 범주로서 들어간다는 것은 특

## II. 4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의 특성과 장단점

### 1. 안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Annecy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홈페이지 : <http://www.annecy.org>

개최일시 : 매년 6월 첫 주에서 둘째 주, 2012년은 6월 4일부터 9일 (6일간)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이하 안시영화제)는 프랑스의 작은 관광도시 안시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이다. 956년부터 프랑스 칸영화제(Festival de Cannes)의 애니메이션 비경쟁부문 행사로 시작하였으며, 1960년부터 안시로 옮겨 전문적인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로 승격되었다. 홀수년도 2년 간격으로 열렸던 안시영화제는 1997과 1998년을 기점으로 격년에서 연례행사로 전환되었다. 영화제를 운영하는 본부는 JICA에서 CICA를 거쳐 현재 CITIA(City of Moving Images)<sup>3)</sup>로 명칭을 개명하였는데, 안시시의 부시장 도미니크 뿌또(Dominique Puthod)가 CITIA의 위원장을 맡는다. 시내 중심에 위치한 봉류(Bonlieu)극장을 메인으로 디카비종(Decavision)을 포함한 중소형의 10개 극장에서 상영되고 봉류 앞 광장에서는 야외상영을 진행한다.

안시영화제의 모체는 CITIA로 안시영화제는 크게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컨퍼런스(Conferences)+마켓(MIFA)+ 크리에이티브 포커스(피칭 및 사전제작지원)로 나눈다. 운영 특성으로 각 부분은 네트워크적 수평 구조에 입각하여 CITIA 운영위원회 통해 협력하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한다. 1985년 애니메이션 산업 비즈니스를 강화하고자 애니메이션마켓 MIFA(Marché international du film d'animation d'Annecy)를 시작하고, 2010년에 유튜브(YouTube) 경쟁섹션을 신설하였다. 창작자와 제작투자자를 연결하는 사전제

---

이할 만하다.

3) CITIA is a cultural-cooperation public establishment (EPCC) funded by the Annecy Greater Urban Area, the Haute-Savoie Regional Council, the Rhône-Alpes Regional Council and the French state.

작지원 프로젝트를 위한 피칭 프로그램 크리에이티브 포커스(Creative Focus)를 강화하는 등 애니메이션이 추구하는 모형, 그 영역과 범위를 확대 조절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이 상당하다.

4) 2000년 중반 애니메이션의 경계를 넘나드는 크로스 미디어 컨퍼런스 개최 및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에 대한 하이브리드 미디어 지지, 국가별 회고전 프로그램인 트래블링(Travelling)<sup>5)</sup> 등 1년마다 개최하는 애니메이션영화제답게 새로운 프로그램과 행사를 적기에 반영,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스튜디오의 블록버스터 애니메이션까지 적극 수용하는 등 수많은 애니메이션 담론을 영화제에서 형성하고자 한다.<sup>6)</sup>

안시영화제의 특성은 앞서 소개한 CITIA를 기반으로 시와 영화제 조직의 체계화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창작자-영화제-관객의 3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한 것이다. 조직의 안정성은 중장기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영화제 예산확보와 전용상영관 지정 및 운영, 영화제 일원의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였으며, 이는 애니메이션 게스트 및 관객의 증가와 함께 안시영화제를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영화제로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산업적 측면에서 MIFA를 비즈니스 공동투자와 협약을 강화하는 등 사업모델로서 변화를 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투자 및 배급 대상작품이 유럽작품에 치중하며, 투자 및 배급 관련 기업 프랑스의 국영방송 테에프앙(TF1)이나 카날 플러스(Canal+) 혹은 미국의 드림웍스(DreamWorks)나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thers) 등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거대기업과 자본에서 비롯한 상업적 목표가 애니메이션 예술의 가치보다 우선할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어, 여전히 해결하여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 4) 2012년 안시영화제는 예선심사부문 외부의 전문가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자체 프로그래머를 통한 심사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예정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영화제 시스템 중에 가장 큰 변화이다.
- 5) 특정한 주제와 국가를 선정하여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집중 소개하는 프로그램.
- 6) 극장개봉 등을 통하여 대중의 문화적 소비가 큰 영역을 차지하는 장편부문 최근 3년간 수상작을 살펴보면, 2009년 <코랄라인 Coraline>과 <메리 앤 맥스 Mary and Max>의 공동수상, 2010년 <판타스틱 Mr 폭스 Fantastic Mr. Fox>, 2011년 <랍비의 고양이 The Rabbis' Cat>까지 거대 스튜디오와 글로벌 배급사의 작품이 수상하는 등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작품이 두드러지는 경향이다.

분류 Bonlieu	Grand Salle (1200), 개막식 및 폐막식, 주요장편 및 경쟁
	Petitie Salle (300), 학생경쟁, 단편경쟁
디카비종 Decavision	1&2, 경쟁, 특별프로그램
	3&4 경쟁, 특별프로그램
Salle Pierre Lamy	TV 작품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
MJC Novel	소규모 특별상영 (영화제 배지소지자)
La Turbine	소규모 특별상영 (영화제 배지소지자)
Giant Screen	야외상영, 지난영화제 수상작
Musee -Chateau	영화제 수상작, 기개봉작

표 2. 안시영화제 2011 상영관<sup>7)</sup>

장편부문 Feature Competition
단편부문 Short films
졸업작품 Graduation films
TV시리즈 TV series
TV커미션드 TV Commissioned

표 3. 안시영화제 2011 출품부문<sup>8)</sup>

장편영화 대상 The Crystal for best feature	장편
특별 우수상 Special Distinction	장편
관객상 Audience Award	장편
프낙 Fnac Award (후원상)	장편
단편영화 대상 The Annecy Crystal	단편
심사위원 특별상 Special Jury Award	단편
장뤼썬이베라 신인작품상 "Jean-Luc Xiberras" Award for a first film	단편
특별우수상 Special Distinction	단편
어린이 심사위원단상 Junior Jury Award	단편
TV 영화 대상 Crystal for best TV production	TV
특별 TV 시리즈 상 Special award for a TV series	TV
TV 스페셜 상 Award for best TV special	TV
교육, 과학, 산업 영화상 Educational, scientific or industrial film award	기타

7) <http://www.annecy.org>.8) <http://www.annecy.org>.

광고, 홍보상 Advertising or promotional film award	기타
뮤직 비디오 대상 Award for best music video	기타
학생영화 대상 Award for best Graduation film	학생
심사위원 특별상 Special Jury award	학생
특별우수상 Special Distinction	학생
어린이 심사위원단상 Junior Jury award	학생

표 4. 안시영화제 2011 시상부문<sup>9)</sup>

## 2. 자그레브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Animafest Zagreb, World festival of Animated Film

홈페이지 : <http://www.animafest.hr>

개최일시 : 매년 5월말에서 6월초, 홀수년:장편, 짝수년:단편  
 2011년은 5월 31일부터 6월 5일 6일간 (장편)  
 2012년은 5월 29일부터 6월 3일 6일간 (단편)

1회 자그레브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이하 자그레브영화제)는 1972년 6월에 열렸는데 자그레브 시와 제작회사인 자그레브 필름(Zagreb Film), 그리고 정부기관의 장려와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초기부터 애니메이션영화제 기틀은 탄탄히 마련하였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유고슬라비아의 정치적 격변기시기에 자그레브 영화제도 정치/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 이후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고 크로아티아로 바뀐 후에야, CAVC (Croatian Audio Visual Center)가 후원기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지만, 이전 시기의 영예와 명성을 찾기에에는 분명히 다른 조건과 상황을 맞이한다. 자그레브영화제는 애니메이션 영화 분야에서 아트애니메이션을 특징으로 하는 동유럽 중심의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1986년, 작가의 창조적인 작품이 기여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장르의 발달이나 애니메이션 화의 다른 부문을 촉진하는데 기여한 개인의 공로를 기리는 평생공로상(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제정하기도 하였다.<sup>10)</sup> 또한 2002년에는 애니메이션 이론에 탁월한 기여를 한

9) <http://www.annecy.org>.

10) <http://www.animafest.hr>.

사람을 위한 상을 제정하여 학문적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힘을 기울였다. 자그레브영화제는 유럽에서 제작된 작가정신이 투철한 예술작품에 특별히 주목하는데 이는 히로시마처럼 상업성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상영기회를 갖지 못하는 영화들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우선정책 때문이다. 장편영화(Feature Films), 단편영화(Short Films)로 격년씩 나누어 진행되는 자그레브영화제는 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러시아 등 주로 동유럽의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참여인원이나 국가 및 운영방식이 ASIFA의 이해관계와 긴밀하게 닿아있다는 것도 자그레브의 특성 중 하나이다.<sup>11)</sup> 2011년 영화제에서는 체코계 미국인 감독 산드라 피어링거(Sandra Fierlinger)와 폴 피어링거(Paul Fierlinge)의 작품 <마이 도그 툴립 My Dog Tulip> 이 장편대상을 수상하였는데, 기타 경쟁 작품 또한 이미 안시를 비롯한 기타영화제에서 소개되었던 작품으로 상영기준의 프리미어보다는 공인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영화제의 성격을 갖는다. 6월에 개최하는 안시와 자그레브는 그 시기적으로 부분적으로 겹쳐 있으며, 안시영화제로 다수의 애니메이션산업 투자기업과 해외참여자들이 쏠리는 현상으로 인하여, 자그레브영화제의 최근상황마켓의 규모가 비교적 오래되었음에도 크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초청 편수 및 방문인원의 감소 등 행사의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 더욱이 신작 및 화제작 등의 발표가 거의 없어, 새로운 프리미어 작품을 기대하는 관객층의 요구가 수용되기에는 어려운 격년영화제 운영에 따른 단점마저 갖고 있다. 그럼에도 2007년부터는 지역의 애니메이션 산업을 위한 피칭프로그램과 펀드를 구성하여 작가와 전문가로 하여금 창작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등 독립작가에 대한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애니메이션영화의 창의성 높은 작가중심의 예술 가치를 선도한다는 것은 자그레브에서영화제에서 발견하는 주목할 만한 점이다.

Europa Cinema	경쟁작품 (장편)
Tuskanac Cinema	경쟁작품 (장편)

11) ASIFA의 국제분부가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 처음 생겼다.

<http://www.animafest.hr>.



Ulupuh Cinema	전시 및 특별이벤트
French Institute Media Theque	미디어 스크리닝

표 5. 자그레브영화제 2011 상영관<sup>12)</sup>

단편경쟁 Short Competition -2010년	짍수해
장편경쟁 Feature Competition -2011년	홀수해

표 6. 자그레브영화제 2011 출품부문<sup>13)</sup>

대상 Grand Prize
스페셜 언급 Special Mention
베스트 프로젝트 앤 피칭상 Zagreb Golden Award
관객상 Audience Award

표 7. 자그레브영화제 2011 시상부문<sup>14)</sup>

### 3. 오타와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Ottawa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홈페이지 : <http://www.animationfestival.ca>

개최일시 : 9월말, 2011년은 9월 21일부터 9월 25일(5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9월에 열리는 오타와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이하 오타와영화제)는 1976년 캐나다 영화협회(Canadian Film Institute)와 국가영화위원회 NFB(National Film Board)의 지원을 받아 1회를 개최하였다.<sup>15)</sup> 이후 격년제로 짝수 해에 열리는 북남미 아메리카 지역 유일의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로 발전하였다. 북남미 지역의 특성화된 애니메이션영화제로서 지정학적 지위 부여는 출범시기부터 ASIFA의 한 대륙 한 영화제의 공식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북미에 위치하여 지역성을 대표하는 오타와영화제는 로컬 성향이 강한편이며, 미국의 독립 실험 애니메이션과 영국의 성인애니메이션 및 클레이, 캐나다의 인디 아트 애니메이션, 남미의 정치적이며 직선적인 화법을 가진 퍼포먼스를 주

12) ANIMAFEST ZAGREB 2010.

13) ANIMAFEST ZAGREB 2010.

14) ANIMAFEST ZAGREB.

15) <http://www.animationfestival.ca>.

로 소개하였다. 2년제로 개최되었던 오타와영화제는 1997년부터는 오타와 학생애니메이션영화제를 통합하여 매년 열기 시작한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유일한 학생작품 및 신인감독의 데뷔작만을 본선 대상으로 하는 오타와애니메이션영화제는 학생부분을 강화, 12세 이하의 학생들 작품부터 청소년 작품, 대학생 작품, 대학원작품 그리고 신인감독 데뷔작 등 전 연령대에 걸쳐 공식경쟁부문을 진행한다.<sup>16)</sup> 오타와영화제의 목표는 북미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젊은 애니메이션 작가들의 발굴과 육성에 있다. 영화상영과 함께 특이하게 젊은 감독들의 상호교류참여를 위한 공식행사로서 다양한 파티를 활용한다.<sup>17)</sup> 지정학적 특징에서 기인한 캐나다/미국/영국의 영어권 선정 작품 빈도가 높은 편이며, TV 애니메이션과, 성인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010년 장편 대상을 영국의 필 멀로이(Phill Mulloy)의 성인애니메이션 <굿바이 미스터 크리스티 Goodbye Mr Christie> 에게 선정한 오타와영화제는 2011년도 같은 감독의 <죽었으나 아직 묻히지 않은 Dead but not buried> 에게 대상을 시상하여 영화제에서 한 감독이 2년 연속 대상을 받는 진기록을 세웠다. 안시의 MIFA 처럼 비즈니스 마켓을 위한 견본시 TAC(Television Animation Conference)를 통해 배급, 공동제작, 마케팅 프로모션을 영화제 기간 중 이틀간(21-22, September) 진행한다.<sup>18)</sup> 특히 TAC를 통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애니메이션 산업 및 기업소개 책자를 발간하는 등 북미의 애니메이션 산업창구로서 활발히 기능하는 것은 오타와영화제만이 가진 장점이다.<sup>19)</sup> 한편으로 비영어권인 아시아 및 제3세계작품에 대한

16) <http://www.animationfestival.ca>.

17) 오타와영화제 소개에 따르면 작가들의 미팅을 위한 사교적 Party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18) <http://www.animationfestival.ca>.

19) 참여업체는 주로 북미의 스튜디오가 많으며 다음과 같다. 20th Century Fox, Bejuba! Entertainment, Breakthrough Films and Television, Cartoon Network, CBC Television, Cookie Jar Entertainment, Corus Entertainment, Decode Entertainment, Discovery Kids Canada, Disney TV Animation, E! Entertainment, Fresh TV Inc., Hit Entertainment, Little Airplane,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Nickelodeon Animation Studios, PBS, Spin Master Entertainment, Starz Animation, TELETOON, Treehouse, YTV, Ubisoft, Warner Brothers.

언어지원이 영화제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주와 유럽을 제외한 국가의 출품과 참여가 부족한 것은 국제영화제로서 오타와영화제의 해결할 과제이다. 결국 산업적으로 가장 활발한 북미지역의 대표성으로 인하여 클러스터 애니메이션 산업과 기반조성구축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지역을 넘어선 세계적인 영화제로서의 제약을 가진 것은 오타와 영화제의 특성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ByTown Cinema	경쟁작품 (장단편)
Empire Theater - Rideau Centre	경쟁작품 (장단편)
Arts Court Theater	특별상영
National Galley Auditorium	학생단편

표 8. 오타와영화제 2011 상영관<sup>20)</sup>

장편 Feature
학교경쟁 School Competition
뉴미디어 New Media Competition
독립단편 Independent Short Competition
학생경쟁 Student Animation Competition(대학원, 대학, 고등학교)
커미션드 Commissioned Film Competition
어린이영화/비디오 Films/Videos Made for Children

표 9. 오타와영화제 2011 출품부분<sup>21)</sup>

장편대상 Grand Prize for Best Animated Feature
독립단편대상 Grand Prize for Best Independent Short Animation
학생대상 Grand Prize for Best Student Animation
커미션드대상 Grand Prize for Best Commissioned Animation

표 10. 오타와영화제 2011 시상부분<sup>22)</sup>

#### 4. 히로시마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Hiroshima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홈페이지 : <http://www.hiroanim.org/>

개최일시 : 2년 주기로 8월,

20) <http://www.animationfestival.ca>.

21) <http://www.animationfestival.ca/regulation>.

22) <http://www.animationfestival.ca/regulation>.

2010년은 8월 7일부터 8월 11일 5일간  
 2012년은 8월 23일부터 8월 27일 5일간

히로시마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이하 히로시마영화제)는 '사랑과 평화(Love & Peace)'라는 주제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격년영화제이다. 1985년 제1회 개최 이후 짝수 년도마다 격년제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애니메이션영화제로<sup>23)</sup>영화제 주관은 영화제 조직위원회, 히로시마시, 히로시마 미래재단 그리고 Co-Organizer로 AISFA Japan 이 참여한다. 히로시마영화제는 상업성이 배제된 작가주의 애니메이션을 지향하며, 단편 중심의 경쟁과 비경쟁장편을 도입한다. 경쟁부문(단편), 스페셜프로그램, 학 교육프로그램, 포럼, 워크샵, 전시회, 세미나, 교육마켓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무엇보다 상업성이 배제된 아트애니메이션의 소개와 단편 애니메이션의 경쟁부문에 행사를 집중하고 있다. 히로시마영화제는 히로시마 원폭투하 후 40주년이 되는 해인 1985년부터 시작, 공동 설립자인 렌조 기노시타와 사요코 기노시타가 창립한 이후, 렌조 기노시타의 사후에는 사요코 기노시타가 지금까지 집행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다.<sup>24)</sup> 히로시마영화제는 1회를 1985년 히로시마 시극장에서 시작하여, 87년(2회), 90년(3회) 웰 페어 홀 (Welfare Annuity Hall) 시대를 거쳐 4회 1992년 영화제가 열리는 장소를 아스터 플라자 (Aster Plaza)로 옮긴 이후,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조직의 기반이 안시시의 CITIA처럼 문화공동체 같은 공공의 조직이 아닌, ASIFA Japan의 대표자로서 사요코 기노시타의 인적기반에 우선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점이다. 히로시마 영화제의 특성은 상업성을 배제한 철저한 작가주의 애니메이션만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은 예술적 가치에서는 장점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는 단점으로 양면적으로 작용하는데, 실제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하여, 글로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브리(Ghibli), 도호

23) 히로시마영화제 집행위원장 사요코 기노시타 (Sayoko Kinoshita)는 ASIFA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AISFA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4) 'Lappy' 라는 공식캐릭터는 '사랑', '평화', '행복'을 담고 있다.  
<http://www.hiroanim.org/>.

(Toho), 도에이(Toei), 프러덕션 I.G(Production. I,G) 등의 대표적인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작품들은 도쿄 애니메이션 페어(TAF)나 도쿄아니맥스포 등에서 신작 및 전시행사를 가질 뿐, 히로시마영화제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이처럼 히로시마영화제는 예술성 높은 단편과 애니메이션 작가를 지지한다는 점이 일본 내의 다른 애니메이션 행사와는 다른 가장 큰 차별성으로 부각되어 왔다. 상업작품 또한 고전적인 주제인 세계의 ‘사랑과 평화’와 태생적인 기원으로 인하여 표현적으로 다양하고 거친 애니메이션 작품보다는 표현에 있어 다소 정형화된 주제 형식이 우선한다.<sup>25)</sup> 영화제 운영방식이 현 시대의 달라진 애니메이션 산업과 기술적 발전에 대하여서는 대안적인 담론의 형성과 성과를 내지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상업성을 배제한 예술적인 목표를 지향하는데서 오는 일본 관객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참여를 촉구, 활성화하는 문제는 히로시마영화제의 당면과제이다.<sup>26)</sup>

Grand Hall	장편 및 스크리닝 토크
Medium Hall	장편 및 단편
Small Hall	학생 및 어린이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표 11. 히로시마영화제 2010 상영관<sup>27)</sup>

Short 단편부문 (경쟁), Feature 장편부문은 출품이 아닌 초청
--

표 12. 히로시마영화제 출품부문 2012<sup>28)</sup>

대상 Grand Prix
히로시마상 Hiroshima Prize
신인상 Debut Prize
렌조 기노시타상 Renjo Kinoshita Prize
심사위원특별상 Special International Jury Prize(s)
우수상 Prize(s) for Outstanding Works (s)

25) 실제로 장편은 출품부문 없고 오로지 평화를 주제로 한 초청과 스크리닝 토크만 진행한다. <http://www.hiroanim.org/>.

26) 2010년 히로시마영화제에서는 라이카 작품으로 할리우드 인기작인 <코렐라인> 상영과 스크리닝 토크를 프로그램화함으로써 그동안의 작품성향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다.

27) <http://www.hiroanim.org/>.

28) <http://www.hiroanim.org/>.

관객상 Audience Prize
--------------------

표 13. 히로시마영화제 시상부문 2012<sup>29)</sup>

영화제	특성	장점	단점
안시	규모, 권위에 있어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영화제로 세계애니메이션 흐름을 선도.	CITIA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대중성+예술성+관객지향성을 조화.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의 유연성. 마켓 MIFA의 활성화로 비즈니스 시장을 선도.	다양성 수용 및 애니메이션 산업이 애니메이션 가치 자체를 우선할 수 있다는 점.
자그레브	작가주의 애니메이션 지지, 동유럽의 아트 애니메이션 역사의 한 부분.	오랜 전통과 애니메이션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증명.	정치적/경제적위기로 명성 쇠퇴 예술로서만 영화제가 기능한다는 점.
오타와	북미애니메이션 산업의 허브.	애니메이션 산업과 교육의 조화, 마켓 TAC의 활성화.	북미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참여부족.
히로시마	평화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주제의식을 강조.	히로시마의 상징적인 정체성과 1회부터 지속한 조직의 체계 및 일관성.	상업성을 배제한 데서 오는 관객감소현상과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지 못함.

표 14. 4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특성과 장단점 비교

### Ⅲ. 한국애니메이션영화제의 특성과 장단점

#### 1.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이하 SICAF)는 1995년 (사)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의 공동주최로 COEX 1층 태평양관에서 8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6일간 1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1996년 2회 행사

<sup>29)</sup> <http://www.hiroanim.org>.

후 홀수 해마다 열린 SICAF는 5회 2001년도부터는 다시 매년 행사로 전환하였으며, 주로 COEX 일대에서 행사를 가졌다. 2003년부터 서울시로부터 10년간 100억 원의 예산지원으로 ‘아시아 최대의 애니메이션 영화제’, ‘세계 5대 애니메이션영화제’ 라는 목표를 가진 SICAF는 사실상 4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와는 조금 다른 ‘축제 (Festival)’ 에 초점을 맞춘다. 크게 전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국제디지털만화전, SPP(Seoul Promotion Plan) 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세계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독특한 형태로 이는 앞서 진술한 페스티벌의 범주 안에 하위로서 애니메이션영화제가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SICAF 애니메이션영화제의 특성은 ASIFA의 공인행사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규격과 운영에 있어 이른바 4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가 갖는 특성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애니메이션 행사와는 별개의 장소에서 COEX에서 치뤄지는 행사규모에서 오는 인지도와 아시아에서 비교적 오래된 전통과 역사, 그리고 거대도시 서울이 추구하는 국제행사로서 SICAF는 이러한 도시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다만 조직위원회가 애니메이션뿐 만이 아닌 만화까지 포함한 다양한 구성체로 상호 이해관계가 다르고 의견수렴과 결정이 늦는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이라는 도시의 문화정체성이 추구하는 문화의 대표성의 범위가 SICAF 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sup>30)</sup> 그리고 무엇보다 SICAF 운영을 위한 재정충원이 서울시의 예산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은 이후의 행사에 있어 선결해야할 과제이다.

CGV 명동역4	경쟁 및 초청프로그램
CGV 명동역5	경쟁 및 초청프로그램
CGV 명동역6	경쟁 및 초청프로그램
서울애니시네마	경쟁 및 초청프로그램

표 15. SICAF 애니메이션영화제 상영관

장편 Feature

30)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스의 특성상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며, 서울시 후원 문화행사로서도 서울국제청소년 영화제, 서울환경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 다양한 시 후원영화제가 있다.

단편_일반 Short Films_Professional
단편_학생 Short Films_School and Graduation
TV & 커미션드 TV & Commissioned Films

표 16. SICAF 애니메이션영화제 출품부문

장편 그랑프리 Grand Prix
장편 심사위원특별상 Jury Special Prize
단편_일반 그랑프리 Grand Prix
단편_일반 우수상 Special Distinction
단편_일반 심사위원특별상 Jury Special Prize
단편_일반 관객상 Audience Choice
단편_학생 그랑프리 Grand Prix
단편_학생 우수상 Special Distinction
단편_학생 심사위원특별상 Jury Special Prize
TV 우수상 Special Distinction
TV 심사위원특별상 Jury Special Prize
커미션드 우수상 Special Distinction
커미션드 심사위원특별상 Jury Special Prize

표 17. SICAF 애니메이션영화제 시상부문

## 2. 부천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부천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이하 PISAF)는 1999년 1회를 시작으로 SICAF와는 다르게 학생전문 애니메이션페스티벌로 컨셉을 갖고 개최하였다. 특히 부천시가 2000년 이후 만화영상클러스터 도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도시로서 비전을 갖고 그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은 PISAF가 부천의 5대 문화산업에 포함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PISAF는 2009년부터 고풍TV와 야후 코리아의 협력으로 시작한 온라인경쟁 부문 강화, 2010년 안시영화제 M.O.U 연장체결 등으로 국제협력 강화, 순회상영의 기획 및 확대, 2011년부터 애니메이션 글로벌 잡페어 기능을 강화한 애니페어의 런칭 등 그 움직임을 크게 하면서 사업다각화를 통하여 SICAF와 차별화하고 있다. 다만 13년간 학생영화제로서 인식되어



은 PISAF는 그 이름에서 오는 특성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4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인 오타와학생영화제가 그 성과 저조로 인하여 오타와영화제를 흡수/병합한 과정에서 보듯이 학생영화제로서의 특성은 일반관객들의 행사 참여와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데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단점은 최소화하여 학생전문영화제체로서 장점을 특성화하는 방안은 결국 PISAF의 정체성과도 직결되며, 향후의 발전방향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만화박물관 애니관	초청장편
한국만화박물관 점핑관	국제학생경쟁
제2기 기획전시실	기개봉작 무료상영
홍보관	세계교류영화제프로그램
야외자동차상영관	장편 및 오피너스

표 18. PISAF 애니메이션영화제 상영관

국제학생경쟁 International Student Competition
국제학생경쟁 International Student Competition (On-line Competition)

표 19. PISAF 애니메이션영화제 출품부문

국제학생경쟁 대상 Grand Prix	본상
국제학생경쟁 심사위원특별상 Jury Special Prize	
국제학생경쟁 우수상_(해외) Special Distinction (International)	
국제학생경쟁 우수상_(국내) Special Distinction (Domestic)	
국제학생경쟁 관객상 Audience Prize	
국제학생경쟁 온라인 우수상	
국제학생경쟁 네티즌 초이스	
농협 부천시부장상 NH BANK Puchon Branch Prize	스폰서상
유광선상1 (해외) YOO kwang-sun Prize (International)	
유광선상2 (국내) OO kwang-sun Prize (Domestic)	
FedEx 상 FedEx Prize	
Yahoo Korea상 Yahoo! Korea Prize	
곰TV 상 GOMTV Prize	

표 20. PISAF 애니메이션영화제 시상부문

#### IV. 한국 애니메이션영화제 발전방향

한국애니메이션영화제는 1995년 시작된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SICAF)과 1999년 시작된 부천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PISAF)이 서울과 부천의 도시를 거점으로 매년 5일간 개최되고 있다.<sup>31)</sup> SICAF가 만화 및 전시회는 코엑스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영화제는 별개의 장소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PISAF는 복사골 문화센터 시대를 거쳐 2011년부터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애니메이션영화제를 개최하였다. <표21>에서는 SICAF와 PISAF를 <표22>에서는 앞서 기술한 4대 국제영화제와 대비되는 장단점을 아래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애니메이션영화제	개최시기	상영관	특성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페스티벌	7월 중순 (5일)	CGV명동역 3개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총 4개관 (1회당 500석)	장편, 단편, TV및 광고를 포함한 경쟁+비경쟁
부천국제학생 애니메이션페스티벌	11월초(5 일)	한국만화박물관 총2개관 (1회당 450석)	국제학생경쟁 중심 애니메이션영화제 에 +초청작품

표 21. 한국애니메이션영화제 비교(2001)

	SICAF 애니메이션영화제 (2011)	PISAF 애니메이션영화제 (2011)
장 점	-서울의 도시적인 특성 및 인지도 -다양한 전시, 국제디지털만화 등 만 화와 애니메이션을 포괄한 규모	-부천시의 정책으로서 5대사업에 포함 -학생경쟁중심의 전문성 및 다양성 추구
단 점	-안시, 자그레브, 오타와, 히로시마처 럼 집중화된 관광도시로서 기능성	-애니메이션 관객의 다양성 -해외행사참여인원의 부족 - '학생'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31) 춘천 애니타운 페스티벌은 국내지역행사로 국제영화제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SICAF와 PISAF는 '국제' (International) 행사로서 국문과 영문에도 이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객참여가 점차 감소함</li> <li>-안정적 예산 확보가 시급함</li> <li>-행사의 다양화로 인한 전문성이 단점으로 지적됨.</li> <li>-다수의 단체가 참여한 조직위원회로 상호이해관계가 얽혀있음.</li> <li>-애니메이션영화제 공식상영관이 자주 바뀜 (관객편이성이 좋지 않음)</li> <li>-국제적 행사로서 시스템구축이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전문성 의식 및 일반관객의 배타성</li> <li>-운영재원확보가 유동적 (시비 및 국비)</li> <li>-한정된 상영관과 공간에 따른 상영계약</li> </ul>
--	--

표 22. 4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비교한 한국애니메이션영화제의 장단점

4대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를 비교분석하면서 이를 한국애니메이션영화제에 적용할 모델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것이다.

### 1. 전용상영관 확보 및 관객지향성 재고

도시에 기반을 둔 애니메이션영화제들은 극장이나 부대행사장 등 주변지역의 편리한 동선과 도시편의시설은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위에서 살펴본 이른바 4대 영화제들은 개최 시기 및 장소에 있어 변화를 주는 대신에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다는 것은 하나의 공통점이다. 반면에 SICAF와 PISAF는 개최횟수가 늘어나가는 것과는 별개로 및 상영관의 변동이 매우 잦았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SICAF는 2009년부터는 매회 다른 곳에서 애니메이션영화제 행사를 진행하였고, PISAF는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2011년부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만화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장소의 혼선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영화제 시스템운영에서 매우 불안정하다. 후자인 PISAF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내의 한국만화박물관에서 2011년 첫 행사를 맞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열린 장소의 낯설음과, 대중교통 부재로 인한 관객의 접근성에서 불편한 점을 내재하고 있음에도,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의 구성과 전용상영관으로 지속적인 입지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후 행사에 참조할 만하다.

영화제 (년도)	상영관	영화제 (년도)	상영관
-------------	-----	-------------	-----

SICAF2007	CGV용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PISAF2007	복사골 문화센터, 프리머스 소풍
SICAF2008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PISAF2008	복사골 문화센터
SICAF2009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PISAF2009	온라인영화제
SICAF2010	CGV압구정	PISAF2010	복사골 문화센터, 부천시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SICAF2011	CGV명동역, 서울애니메이션센터	PISAF2011	한국만화박물관 일대

표 23. 최근 5년간 SICAF와 PISAF의 공식 상영관

안시영화제의 봉류 극장은 약 1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개폐막, 메인 상영을 비롯한 주요행사가 펼쳐지는 안시영화제의 얼굴(Landmark)이다. 자그레브영화제의 유로파 시네마와 오타와영화제의 바이타운 및 히로시마 영화제 아스터 플라자 역시 각 영화제의 대표적인 상영관으로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상영조건을 오랜 기간 맞춰왔다. 이 시점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15회가지나 2011년 센텀에 영화제 전용관 ‘영화의 전당’을 완공하고, 벅스코 전시장(Bexco)에 마켓 AFM (Asian Film Market)과 BIFCOM을 운영해 나가는 방식은 애니메이션영화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국제영화제 규격으로서 전용상영관 확보와 전시장등의 기반시설조성은 영화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선결조건이며, 관객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최고의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는 4대 애니메이션영화제 또한 이러한 기성 조반에 근거하여 성과를 낸 것과 일맥상통하다.

## 2. 정체성의 확립과 특성화

안시가 상징하는 애니메이션 테크놀로지에 관한 적극적인 수용과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및 산업과의 결합, 자그레브의 꾸준한 동유럽애니메이션에 대한 작가주의 애니메이션의 지지, 오타와의 젊은 애니메이터의 꾸준한 발굴 및 교육프로그램 육성, 히로시마의 의 주제의식, 작가주의에 대한 지지와 아시아적 가치 창출과 단편작품의 전문성 등은 이들 영화가 지향하는 바를 명확

히 보여준다.

	SICAF 애니메이션영화제 (2011)	PISAF 애니메이션영화제 (2011)
정체성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의 애니메이션 전문영화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하는 차세대 영화제 -대중에게 열린 인터랙티브 영화제	-국제학생영화제로서 위상강화 및 온라인경쟁 등의 통합된 온오프라인 영화제 추구 -글로벌와이드 프리미어 프로그램 편성 -세계 최고의 마스터클래스
특성화	-국제적인 행사로서의 기준 마련 및 경쟁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 -애니메이션영화제 브랜드 가치 제고 -중장기 발전계획의 명확성과 체계성수립 및 미래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기반조성	-애니메이션교육기관/ 대외기관과의 상호 협력강화로 시너지효과 창출 -국제학생경쟁부문의 대내외적 위상강화 -애니메이션 수용층의 확대를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표 24. SICAF와 PISAF 애니메이션영화제의 정체성과 특성화

### 3. 국제협력 및 위상강화

국제적인 행사를 지향하는 국내 개최 애니메이션영화제의 모델은 결국 국제협력과 그에 따른 위상강화로 귀결된다. 특히 적극적인 M.O.U 협력 및 비즈니스 모델 공동연구 등은 그동안 광고 및 상호프로그램 상영교환의 소극적인 방법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제영화제의 평가기준은 역시 프로그램의 강화, 해외초청자 등뿐만이 아니라 적합한 조건, 국제인력, 이를 수용하는 시스템에 근거하여 전문적인 서비스와 결합하는 모델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국제행사로서 더 많은 국외 감독 및 게스트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SICAF 애니메이션영화제	PISAF 애니메이션영화제
프로그램 교류 (수용)	-시그라프 (Siggraph)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 (Annecy) -슈투트가르트 애니메이션 영화제

		(ITFS) -일본미디어예술제 (JMAF) -항주동만제 (CICAF) -일본학생애니메이션영화제(ICAF)
프로그램 교류 (제공)	-일본미디어예술제(JMAF)	-Exptoons, (아르헨티나) -fFresh, (아일랜드) -Yonago Eiga Jihen (일본) -항주동만제 (CICAF) -일본학생애니메이션영화제(ICAF)
부스 및 인적자원 교환	-일본미디어예술제(JMAF) -도쿄애니메이션페어(TAF)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Annecy) -항주동만제 (CICAF) -일본학생애니메이션영화제(ICAF) -WE3, (중국)
카탈로그 광고교환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Annecy) -시그라프 아시아 (Siggraph Asia) -항주동만제 (CICAF) -중국 디지털아트 페스티벌 (CICDAF) -ACTIF 차이나, -Sichun TV 페스티벌, 중국 -Anifest, 체코 -Animateka , 슬로베니아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Annecy) -슈투트가르트애니메이션영화제 (ITFS) -일본미디어예술제 (JMAF) -항주동만제 (CICAF)
대외기관 협력	-일본국제교류기금 -ASIFA	-일본국제교류기금 -프랑스대사관, 프랑스문화원 -이스라엘대사관

표 25. SICAF와 PISAF 애니메이션영화제 국제협력 현황

최근 중국에서 애니메이션영화제가 유행처럼 번져 도시마다 경쟁적으로 형성, 개최되고는 있지만, 콘텐츠 부족과 운영 및 관리 미숙으로 아직 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예산대비 하드웨어에 비해 체계적인 국제적 모델과 전통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16회를 준비하는 애니메이션영화제 SICAF와 14회를 맞는 PISAF는 그동안 축적해온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 단순한 협력관계에서 비즈니스 모델 및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 창출의 새로운 차원의 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화제는

국제교류의 한 장이다.

## V.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의 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살펴보듯이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를 넘어 세계적인 영화제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안정한 예산 확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로 결국 넘어온다. 불안정한 예산 확보로 인해 야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영화제를 운영할 수 없다는 데 있으며, 이는 앞서 제기한 전용상영관, 관객의 편이성 증대와도 직결되며, 무엇보다 영화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애니메이션영화제의 열기가 감소한 것은 이러한 조건 외에 초창기보다 훨씬 다양한 국제영화제가 국내에서 개최되어 애니메이션 영화팬들의 관심과 열기가 분산된 것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수용의 변화에도 그 원인은 존재할 것이다. 그럼에도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애니메이션영화제의 정체성 문제이다. SICAF와 PISAF의 아시아최대의 애니메이션영화제라는 외형적인 목표는 결국 외형적인 크기에 집착하게 된다. 이는 10회를 넘어선 한국의 애니메이션영화제는 이제 외적인 성장보다 개최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애니메이션영화제가 가지는 그 지위와 정체성을 다시 돌아 봐야 할 것을 의미한다.

안시영화제를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애니메이션영화제가 주는 매력이 참 크다는 것이다. 애니메이션은 시초부터 숨을 불어넣는 그 생동감 자체가 예술자체로서 기능한다. 본 논문에서 다룬 문제의식과 방법론이 애니메이션영화제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돌아보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애니메이션영화제의 앞으로 보기로 기능하기 위해선, 창작자-영화제-관객의 삼각관계구조 속에서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체험할 관객을 확대하고, 창작자에게 창작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영화제가 어떻게 이를 구축해 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었을 때 애니메이션영화제의 활성화 기능과 국제적 위상은 저절로 확보되리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2009 국제영화제 평가』, 2009.
-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제영화제 평가』, 2010.
- 한국영상산업정책연구소, 『2006년 국제영화제 평가』, 2006.
- 한국영상산업정책연구소, 『국제영화제 평가시스템 개발 및 2005년 국제영화제 평가』, 2005.
- 김하원, 『해외영화제출품가이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김민정,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의 현황과 애니메이션전문영화제로의 발전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논문, 2001.
- 김은화, “국내국제영화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10.
- 김재훈, “국제영화제의 비교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1999.
- 엄정호, “국제영화제의 구성요소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9.
- ASIAF, ASIFA 50th Anniversary The Animation Art and The History of ASIFA, ASIFA Publication, 2011.
- L'OFFICIEL FESTIVAL INTERNATIONAL DU FILM D'ANIMATION, 2009, 2010, 2011.
- ANIMAFEST ZAGREB 2008, 2009, 2010.
- OTTWAA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GUIDE BOOK Book, 2010.
- HIROSHIMA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CATALOGUE, 2010.
- 안시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www.annecy.org](http://www.annecy.org).
- 자그레브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www.animafest.hr](http://www.animafest.hr).
- 오타나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www.animationfestival.ca](http://www.animationfestival.ca).
- 히로시마 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www.hiroanim.org](http://www.hiroanim.org).



## ABSTRACT

### The Road Map of Animation Festival in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4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s

Choi, Young Chul , Choi, Seung Rak

This article intends to draw the Road map of Korea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through the research of background and its identity of 4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s Such as Annecy, Zagreb, Ottawa and Hiroshima.

I was given opportunity to visit Annecy since 2009, it brought me to the real attraction of animation for watching of pleasure and passion of the people those who love animations. For the combining more advanced system and structure for Animation Festival in Korea, I had to do research all the information from the documents from the Annecy Collections. though I have not get the chance to go others except Annecy, However, I could get their background and history whenever I met the other Festival Committee Members.

These Festivals showed us successful Road Map for the Animation Festivals in Korea as a role model. For the getting advanced system of Animation Festivals in Korea. It requires the animation theater for animation, effort for the Audiences's Convenience and international network composition system. However, the last task of us is to make people to entertain and enjoy the animation Films, its world of attraction.

Keywords : Animation, Festival, Road Map

최영철

남서울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교수

(331-707)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 남서울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Tel : 041-580-2346

ani77@nsu.ac.kr

최승락

남서울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교수

(331-707)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 남서울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Tel : 041-580-2345

srchoi@nsu.ac.kr

논문투고일 : 2011.11.15

심사종료일 : 2011.12.21

게재확정일 : 2011.12.21